

# 언론인의 은퇴 태도가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Effects of Retirement Attitudes of Journalists on Satisfaction with Life in Retirement Preparation

#### -Focused on Gwangju, Jeonnam Area-

이계상, 정민숙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Gye-Sang Lee(yaksue@naver.com), Min-Suk Jung(welfarej@nambu.ac.kr)

#### 요약

본 연구는 언론인의 은퇴 태도가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 및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언론인의 은퇴 태도를 강화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언론인 복지 정책과 실천의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광주, 전남지역 언론사에 근무하는 언론인으로 총 23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PSS 18.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언론인의 은퇴태도가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인의 은퇴태도가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극대화 된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언론인의 은퇴 태도와 노후준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언론인 | 은퇴태도 | 노후준비 | 삶의 만족도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tire attitude of journalists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impact and satisfaction of life in old age, and prepare, perform and enhance the retirement attitudes of journalists to suggest journalists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s preparing for retirement.

Surveyed a total of 233 additional analysis was used to journalists working in Gwangju, Jeonnam media. We used the SPSS 18.0 and 20.0 AMOS program to derive a result, a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with reliability test for the variables, the model was subjected to structure analysis for the hypothesis testing.

The results were the retirement attitudes of journalis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atisfaction with life in retirement preparation, retirement prepara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journalists were retired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attitudes that are ready to maximize retirement life satisfaction. Based on such findings, we propose a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enhance the retirement attitudes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journalists.

■ keyword : | Journalist | Retirement Attitudes | Life Satisfaction |

## I. 서론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복잡해지고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인 국민들의 의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여론 주도층으로서 프리미엄을 누리던 언론인이 맞게 된 시대적 상황 역시 대단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의 언론 환경은 1980년대 말 언론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다. 언론의 자율성 확대 방안으로 제정된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기 간행물의 등록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언론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언론인 수도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언론사와 언론인수의 급격한 팽창은 양적인 면에서 사회 환경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언론의 성장은 언론의 자유 경쟁 시대를 여는 긍정적 평가일 수 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 사회는 IT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뉴스를 손쉽게 모바일 장비를 통해 접하는 독자가 증가 추세이다. 이런 현상은 종이 신문을 통해 뉴스를 보는 시대에서 모바일로 뉴스를 접하는 환경의 전환이기도 하지만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인에게는 업무 부담이 가중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여기에서 IT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타 언론인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면서 매일 같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

특히,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 취재기자들 사이에 취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무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게 됐고, 뉴스를 접하는 독자들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단독 및 특종 기사를 생산해야한다는 스트레스는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신·육체적으로 피로감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취재자에게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지만 맘 편히 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다 신규 언론사 창간, 언론사 간에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언론사의 수입 감소와 경영 악화로 급여나 상여 등의 금전적 뒷받침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언론사를 그만두고 다른 업종을 선택하는 기자들이 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29]. 그러나 40~50대의 언론인들이 전직을 결심

하기까지는 무리수가 따르고, 하는 수 없이 언론에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은퇴 후 삶은 더 큰 걱정이다. 한국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서 언론인들의 노후 환경 역시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650만명으로 총 인구의 12.7%를 차지하며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약 911만명으로 총인구의 17.8%에 달하고[30]있으며,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사회 도달은 2017년, 초고령 사회 도달은 2026년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 고령화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반적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사회 전체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자연적으로 직장과 생업에서 은퇴한 이후의 노후생활 기간의 연장으로 연결되어, 은퇴에 대한 태도 및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언론인들 역시 20~30년씩 몸 담았던 회사를 은퇴하고 난 뒤, 긴 노후시기를 어떻게 보내야할지 막막해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수행된 언론인과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언론인의 특정 몇몇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스트레스 관련[6][9], 직업 정체성[18], 공정성 인식[5], 탈진[8] 연구 등 한정된 분야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언론인의 은퇴 태도, 노후 준비 등 언론인의 은퇴 전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와 언론인들이 은퇴를 맞이해야 하는 현실에서 노후 준비를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을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언론사(신문, 방송)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한국기자협회 소속 회원사만 13곳, 5백 명이 넘는 회원, 인터넷 등 매체를 포함하면 1천 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언론 경쟁의 정글과도 같은 곳이라는 점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언론인의 은퇴 태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및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언론인의 은퇴 태도를 강화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언론인 복지 정책과 실천의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언론인의 은퇴태도는 노후 준비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한 노후 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언론인의 은퇴태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있어 노후준비의 매개효과에 대한 구조적 모형을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인의 은퇴태도와 노후준비를 강화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이론적 배경

#### 1.1 언론인

언론인이란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 등의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적으로 언론으로부터 일반인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중재 대상이 되는 언론매체가 기준이 된다. 실제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언론'에 종사하는 인원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의거,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 통신 및 인터넷 신문에 종사하는 인원"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29].

#### 1.2 은퇴 태도

은퇴란 인간이 전 생애, 즉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삶의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부모와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는 전기 단계와 삶의 주도적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실행하는 중기 단계를 거쳐 일정한 연령이나 기준

에 의해 생산적 위치에서 물러나 인생의 후기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적 사건이라 정의할 수 있다[13].

톰슨(Thompson, 1958)이 퇴직 후의 삶은 퇴직 이전에 퇴직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40]고 주장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은퇴태도(Retirement attitude)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 측정방법 및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혼스테인과 와프너(1985)[36]는 퇴직을 문화적, 개인적 의미의 복잡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개인적 개별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개인적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최초로 퇴직에 대한 기대는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것을 연구하여 퇴직 기대모델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퇴직 후 노후를 노년으로서의 이행, 즉 휴식으로 전환(Transition to Old Age)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경험하면서 퇴직 전 사회관계 혹은 업무상 발생되었던 활동과 집중의 요구가 사라짐으로써 삶을 휴식하고 마무리하는 데에 대한 요구로 대체된다. 따라서 바빴던 일상생활이 한가로운 휴식 시간으로 전환된다고 노후를 기대한다.

둘째, 퇴직을 새로운 출발(New Beginning)로 보는 관점이다. 개인들은 퇴직과 더불어 퇴직을 그들 자신의 만족스런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활력으로 삼아 인생에 있어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요, 오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기간이며 새로운 사업에의 투자시기로 본다.

셋째, 계속(Continuation)으로 보는 관점은 퇴직을 중대한 변화와 충돌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노후생활은 퇴직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지속한다고 강조한다. 퇴직으로 나타나는 실제적 변화는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활동들을 수행하며 되도록 압박감을 적게 받고, 더욱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삶의 기본패턴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강요된 좌절(Imposed Disruption)로 보는 관점이다. 퇴직을 통해 직업을 상실함으로써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으며, 그들이 원하지 않은 강요된 은퇴의 결과 그들은 자신의 일부를 잃었으며 따라서 은퇴는 가혹한 손실로 간주된다[2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혼스테인과 와프너(1985)의 퇴직 기대모델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은퇴 태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1.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만족, 사기, 행복의 개념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10].

또한, 삶의 만족도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즉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생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삶의 만족도란 개인에게 행복을 부여하여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인 안녕감, 또는 질적인 삶의 만족감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과거·현재와 미래의 생활, 행복에 대한 개인 자신의 평가 또는 그에 대한 만족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의 우세성과 생활 중에 경험하는 신체, 정신, 사회, 경제측면에 대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를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생활 만족도 개념으로도 연구하고 있으나, 측정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개념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로 통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1.4 노후준비

노후준비란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11].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노후의 생활만족, 즉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노후는 더 이상 여생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퇴직 후의 생활하면 소극적이고, 어두운 인상을 가져다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풍성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노후 삶의 질에 대해서 제고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책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후생활 대책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노인복지연금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조기 은퇴는 생애 후반부 생활적응기간이 더욱 길어지면서 개인적 어려움을 증가시키게 된다[21].

또한, 개인적으로 노후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노후생활을 맞이하게 된다면 경제수준의 저하는 물론 사회활동의 기회단절로 인한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에 대한 불안과 위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를 스스로 대비하려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노후준비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배계희[24], 배문조[13]는 노후준비를 신체적, 경제적, 경제적 준비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이정화[17]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준비로 나누었다. 이희자와 김영미[19]도 노후준비를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준비의 3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준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노후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준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 2.1 은퇴태도와 노후준비

McPerson & Guppy(1979)는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은퇴준비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38], 정운영 외(2009)는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를 분석 연구에서 각각 은퇴태도가 은퇴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냈다[20]. 그리고, 강신기 외(2013)의 연구에서 퇴직태도의 하위요인인 휴식으로의 전환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부(-)의 영향을, 새로운 출발은 노후준비 전 영역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1], 홍석

태 외(2008)의 연구에서는 퇴직태도의 하위요인인 새로운 출발만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배재덕(2013)은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은퇴태도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은퇴에 대하여 새로운 출발과 계속으로 인식할수록 은퇴 준비를 잘 한다고 하였다[14].

유인순 외(2012)는 노후태도에서 성격특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경제적 불안성,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등의 노후태도가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6].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여러 학자들은 은퇴태도가 노후 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은퇴 태도와 노후 준비간의 관계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 2.1 은퇴 태도와 삶의 만족도

Hendricks & Hendricks(1986)은 개인의 은퇴태도는 은퇴 후 생활적응 및 안정과 생활만족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26], Gamser(1976)[32], George(1980)[33], Hooyman and Kiyak(1988)[35]의 연구 등에서 중년기에 은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와 은퇴 후 생활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는가에 대한 정도가 은퇴 후 노년기의 삶의 안정과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은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수록,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적 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은퇴 이후의 삶에 큰 만족도를 느끼며 더욱 잘 적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선화와 임왕규(2015)는 은퇴예정자의 은퇴설계와 삶의 질의 연구에서 은퇴 태도의 하위요인인 휴식으로의 전환은 부의 영향을 출발에 대한 기대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 이 같은 결과는 은퇴 태도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여러 학자들은 은퇴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일부 학자의 연구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은퇴태도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 2.3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권중돈과 조주연(2000)은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 본인의 근로수입, 배우자의 수입 그리고 재산소득 등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창제(2013)는 은퇴결정 형태와 노후준비가 은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후준비는 경제적 측면의 생활만족도와 전반적 생활 측면의 만족도에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2].

또한, 김주성과 최수일(2010)은 40대 이상의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신체적, 사회적 및 경제적 노후 준비는 긍정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고, 경제적 노후준비가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반해 사회적 노후준비는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반면 권혁창·이은영(2012)는 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후의 경제적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여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3], 이는 일반적인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노후준비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일부 학자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노후 준비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 전남지역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총 258부를 우편 발송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245부가 회수되어 응답이 불성실한 12부를 제외한 23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 2.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연론인의 은퇴 태도가 노후 준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고자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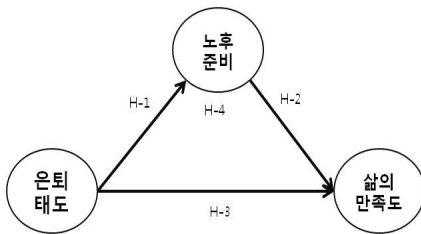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4개의 가설을 구성하였다 가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은퇴 태도는 노후 준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2. 노후 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3. 은퇴 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4. 노후 준비는 은퇴 태도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3. 측정 도구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 3.1 독립변수 : 은퇴태도

은퇴태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은퇴에 대해 형성해 온 생각으로 은퇴 후 생활에 대하여 기대하는 주관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은퇴태도는 오병철(2012)[25]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8문항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은퇴태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734로 나타났다.

### 3.2 매개변수 :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업에서 은퇴하기 전에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등 생활의 모든 분야의 준비를 구체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노후준비를 측정하기 위해 배계희(1988)[24]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4문항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노후준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763으로 나타났다.

### 3.3 종속변수 :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는 개인에게 행복을 부여하여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인 안녕감 또는 질적인 생활 만족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1)[39]이 개발한 LSI-A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3문항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삶의 만족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770으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정규성 분석, 빈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Hair 등(2006)[34]이 제시한, X<sup>2</sup>, CFI, TLI, SRMR 및 RMSEA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모형 적합도 판단 기준은 CFI, TLI의 경우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이고, SRMR 및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이다[31].

## IV. 연구결과

### 1. 주요변수의 평균

연론인이 지각하는 은퇴태도는 5점 만점에 중간 점수

인 3점보다 조금 높은 3.15점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중간점수인 3점보다 높은 3.21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후준비는 5점 만점에 3.05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수들이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의 평균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은퇴태도	1.00	5.00	3.15	.483	-.465	1.321
노후준비	1.00	5.00	3.05	.523	-.082	.163
삶의만족	1.00	5.00	3.21	.663	-.165	.303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은퇴태도는 삶의만족, 노후준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또한 삶의만족과 노후준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변수	은퇴태도	노후준비	삶의만족
은퇴태도	1		
노후준비	.234**	1	
삶의만족	.265**	.499**	1

\*\* p<.01

3.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모형의  $X^2=31.780(p>.05)$ 로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값의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200개 이상의 경우 그러하다 [27]. 본 연구는 233개의 표본을 사용하였으므로 값의 결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앞서 자료분석 방법에서 제시한 바대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적합도 기준을 함께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각각 .987, .991로 좋은 적합도 기준인 0.9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MSEA와 SRMR은 각각 .037, .035로 적합도 기준인 0.08이하로 나타나 권장사용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모델의 적합도 평가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하며, 제시된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구조모형 적합도 비교

적합도	$X^2$	p	TLI	CFI	RMSEA	SRMR
지수	31.780	.000	.987	.991	.037	.035

90 Percent Confidence Interval for RMSEA=(.000;.069)

4. 구조모형 분석

4.1 은퇴태도와 삶의만족, 노후준비와의 관계 검증

언론인이 지각하는 은퇴태도는 노후준비에 직접적 영향( $\beta=.247, p<.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만족도에도 직접적 영향( $\beta=.204, p<.01$ )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후준비는 삶의만족도에 직접적 영향( $\beta=.541,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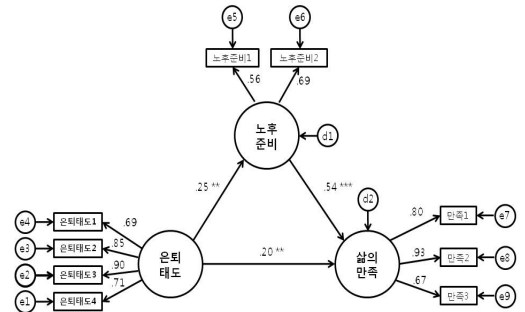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값

표 4.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경로	Estimate		S.E	C.R
	비표준화	표준화		
은퇴태도→노후준비	.148	.247	.055	2.684**
은퇴태도→삶의만족	.219	.204	.078	2.817**
노후준비→삶의만족	.969	.541	.204	4.760***

\*\* p<.01, \*\*\* p<.001

4.2 은퇴태도와 노후준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분석 및 연구모형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각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

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은 AMOS 20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분석한 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모든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통계적 가정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28].

분석 결과, 언론인이 지각하는 은퇴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태도가 노후준비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7이었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식을 통한 유의도 검증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잠재변수간의 직접간접효과 분해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은퇴태도	노후준비	.247**		.247**
	삶의만족	.204**	.017*	.221**
노후준비		.541***		.541***

\*  $p < .05$ , \*\*  $p < .01$ , \*\*\*  $p < .001$

본 연구의 가설 검증결과는 다음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가설 검증 결과

구분	내 용	결과
가설 1	은퇴 태도는 노후 준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2	노후 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3	은퇴 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4	노후 준비는 은퇴 태도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 V.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태도는 노후준비에 대해 24.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에 대한 태도를 새로운 출발과 계속으로 인식할수록 노후준비를 잘 한다는 여러 선행연구[1][14][22][38]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54.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 준비 정도가 높으면 노후에 대해 불안감이 줄어들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여러 선행연구[2][3][7][12]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은퇴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와 은퇴 후 생활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는가에 대한 정도가 은퇴 후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4][32][33][35][37]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노후준비는 은퇴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퇴태도와 삶의 만족도,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등 삶의 만족도 관련 영향요인에 대해 단편적인 관련성을 제시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하여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결과, 노후준비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된 것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적 차원의 은퇴태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노후준비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은퇴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는 언론인의 은퇴 이후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의 지식체계를 보완하는 이론적 기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언론인의 은퇴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언론인의 은퇴태도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노후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언론사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기 힘들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기자협회나 언론진흥재단 등의 직능 단체를 통해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언론인의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책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후생활 대책



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언론인의 경우 경제적 노후 준비가 부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인 노후준비에 중요한 기능을 할 언론인 공제회가 설립되어야 하고 정부나 국회 차원의 재원 조달과 운용 방식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 언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와 자아 존중감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은퇴이전과 은퇴 이후 삶이 급속도로 변하는 언론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은퇴이후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 준비는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가 아닌, 보다 이른 연령에 실천할 수 있도록 언론인의 근무 연차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함의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함의 주요내용

구분	함의 주요내용
1	언론인의 은퇴 이후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보완
2	언론인의 은퇴태도 개선을 위한 노후준비 교육 필요
3	언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을 위한 언론 공제회 설립
4	은퇴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와 자아 존중감을 키울 수 있는 언론인 연차별 프로그램 마련

본 연구는 표본의 분포가 광주·전남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언론인의 은퇴 태도가 노후준비 삶의 만족도와 노후 준비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처음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앞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강신기, 조성숙,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직태도가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11호, pp.117-132, 2013.  
 [2] 권중돈, 조주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제3호, pp.45-54, 2000.  
 [3] 권혁창, 이은영,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2호, pp.61-85, 2012.  
 [4] 김선화, 임왕규, “은퇴예정자의 은퇴설계가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호, 제10호, pp.570-586, 2015.  
 [5] 김일철, 김승일, “언론인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 주관성 연구, 제18권, pp.25-39, 2009.  
 [6] 김의진, “규칙적인 운동이 언론인의 마감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pp.145-153, 2008.  
 [7] 김주성, 최수일,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3호, pp.97-119, 2010.  
 [8] 박상영, 조성제, “언론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정서적 탈진과 신체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p.3548-3556, 2014.  
 [9] 박성규, 조성제, “언론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2호, pp.6155-6162, 2013.  
 [10] 박창식, 송병호, “뇌졸중 환자의 낮병원 프로그램이 도구적·일상생활활동 수행 능력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1호, pp.267-277, 2012.  
 [11] 박창제,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4호, pp.139-166, 2008.  
 [12] 박창제, “은퇴결정 형태와 노후준비가 은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제59권, pp.115-138, 2013.  
 [13] 배문조, “직장인의 은퇴기대가 은퇴준비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1호, pp.145-158, 2007.  
 [14] 배재덕,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은퇴태도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제5권, 제2호, pp.102-126, 2013.  
 [15] 유용식,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

- 12호, pp.738-747, 2013.
- [16] 유인순, 최수일,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245-262, 2012.
- [17] 이정화, "광주 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시고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0권, 제2호, pp.275-289, 2009.
- [18] 이정훈, 김균, "한국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셀러 리멘화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6호, pp.59-89, 2006.
- [19] 이희자, 김영미, "청소년의 부모 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 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2호, pp.117-128, 1996.
- [20] 정운영, 백은영, "은퇴에 대한 의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2호, pp.115-139, 2009.
- [21] 지영숙, "인우고령화의 영향과 노년기 자기관리를 위한 소고," 생활과학, 제3호, pp.53-68, 2000.
- [22] 홍석태, 양혜술,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5호, pp.287-299, 2008.
- [23] 강신기, *중년층의 재무교육,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24] 배계희,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25] 오병철, *베이비붐 세대 남성 직장인들의 퇴직 태도, 노후준비, 노년기 사회참여 의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2012.
- [26] 허정무, *교원의 정년퇴직 준비 과정과 퇴직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27] 김계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한나래 아카데미, 2010.
- [28] 배병렬,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청람, 2011.
- [29] 주정민, 양용희, 박종률, 이유진, *언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 [30]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자치부, 2014.
- [31] M. W. Brown and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lif.: Sage.
- [32] B. D. Gamser, "Retirement from professional sport: The process and problems of occupationa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Sociological Symposium, Vol.30, pp.126-143, 1976.
- [33] L. K. George and L. B. Bearon, *Quality of life in older persons: Meaning and measurement*, Human Sciences Pr, 1980.
- [34] J. F. Jr. Hair, W. E. Black, B. J. Babin, R. E. Anderson, and R. L. Tatham,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2006.
- [35] N. R. Hooyman and H. A. Kiyak, "Minority and socioeconomic status: Impact on quality of life in aging," *Aging and quality of life*, pp.295-315, 1988.
- [36] G. A. Hornstein and S. Wapner, "Modes of Experiencing and Adapting to Retirement," *Internationa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21, No.4, pp.291-315, 1985.
- [37] J. Hendricks and C. D. Hendrick, *Aging in mass Society : Myths and Realities*, 3<sup>rd</sup> ed. N.Y. : Harper Collins, 1986.
- [38] B. McPerson and N. Guppy, "Preretirement lifestyle and the degree of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Vol.34, No.2, pp.254-263, 1979.
- [39] B. L. Neugarten, R. J. Havighurt, and S. S. Tobin,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16, No.2, pp.134-143, 1961.
- [40] W. E. Thompson, "Pre-retirement Anticipation and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14, No.5, pp.35-45, 1958.

저 자 소 개

이 계 상(Gye-Sang Lee)

정회원



- 1992년 2월 : 전남대학교 법학과 (학사)
- 2009년 2월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석사)
- 2014년 9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2001년 1월 ~ 현재 : 광주문화방송 보도국 재직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노인복지, 언론

정 민 숙(Min-Suk Jung)

정회원



- 1976년 2월 : 조선대학교 물리학과(이학사)
- 1998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03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노인복지, 여성복지